



지난 2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훈·김태년·박영선·이낙연·이상호·김현미·이개호·양항자·김철주·서삼석, 호칭은 생략)

## “전남은 더민주의 뿌리, 현안사업 꼭 챙기겠습니다”

### 더민주-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일 무안공항 회의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남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2017년 국고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고, 더민주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공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가 회의 장소를 무안공항으로 선택한 것은 공항 활주로 연장과 호남고속철도 경유 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 참총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나주·화순), 송대수(여수·갑),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2017년 국고예산 건의 15건, 영산강 유지·관리 및 선박 건조 등 2016년 추경예산 5건, 정책 지원 5건을 집중 건의했다.

이 전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은 조선업, 석유화학, 철강 등 3대 주력산업이 사양화 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올해 일자리 창출 종합대상과 수출율 1위, 관광객 증가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하고 “가장 긴급한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회의 장소를 이곳으로 택했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경로당 에어컨 설치 국비지원이 이뤄졌지만 전남 경로당의 15% 정도가 여전히 에어컨이 없다”며 “에어컨 추가 설치예산 반영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연륙·연도교 건설 등 SOC 사업 확충, 대불산단 소형선박 플로팅도크 설계비 확보,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해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항 석유화학 돌핀시설 건설,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겠다”며 “특히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를 이 지역 출신으로 선출한 만큼 지금까지의 차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과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전남이 관광객 유치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놀랍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경유 등의 지역현안에 대해 정부가 국비지원을 미루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께서 전남에 강력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 전남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6년 8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화순 하니움스포츠허브 적벽홀

###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 이개호 현 위원장 단독 입후보

오는 1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이개호 현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전남도당 위원장은 경선 없이 현 이개호 위원장의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민주 전남도당 선관위(위원장 김재무)에 따르면 지난 1, 2일 이틀간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남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이 위원장만 입후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화순 하니움스포츠허브에서 8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에 이어 당 대표 및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 지역위원장 공모 심사 결과 발표

### 여수갑 등 6곳 지역위원장 확정... 목포 등 4곳 지역위원장 직대 임명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심사 결과 송대수(여수·갑), 신정훈(나주·화순), 김재무(광양·구례),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후보 등 6명이 전남 지역위원장에 각각 선임됐다.

또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던 목포는 김종현 전 중앙당 사무부총장, 여수를 박병렬 전 전남도의회 의장, 순천은 조충훈 시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박병종 고흥군수가 각각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프로필 5면>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이 접수된 전국

25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20대 총선 출마자가 지원한 지역 중 222곳을 ‘단수 추천’ 지역으로 결정했고, 복수 후보 지역 중 후보 간 점수차가 적은 6곳은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목포 등 전남 4곳은 당초 ‘사고 지역’으로 정해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기로 했으나 지난달 25일 제61차 비대위 회의를 통해 4곳 모두 직무대행을 전격 임명했다.

조 순천시장의 경우 영입 케이스로 전격적인 복당과 함께 지역위원장 직대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2012년 3월 4·11 보궐선거를 앞두고 탈당 후 4년4개월여만에 복당했다.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울)이 지난달 14일 나주 M스테인호텔에서 열린 도당 워크숍 특강을 시작하면서 "전남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

# 전남도당, 나주에서 핵심당원 워크숍 개최

### 추미애·송영길 등 당권 주자들, 호남민심에 뜨거운 구애 박영선·표창원 의원, 호남민심 회복 방안 등 특강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14일부터 1박2일간 나주 M스테인호텔에서 당직자와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당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강 내용 4면>

'당원과 함께 하는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워크숍은 호남민심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안민석 당 교육연수원장, 당 대표 출마에 나선 추미애·송영길 의원, 박영선·표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력한 수권정당의 기틀을 갖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남도당이 앞장서

자"고 당부했다. 이어 축사를 한 당 대표 후보 두 사람은 호남 당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유세대결을 펼치며 8·27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사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새누리당과 다른 강단있는 야당을 만들겠다"며 오는 8·27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추 의원은 "첫 의총에서 이개호 의원이 눈물로 당선소감을 밝히던 장면이 상기된다"며 "아직도 호남패배의 침울하고 참담한 마음이 위로되지 않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되어 이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는 우리 당 최대의 과제이고, 4·13총선의 민의도 그렇다. 제가 수권

정당의 역량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호소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모든 정치를 포기할 각오로 온몸을 던져서 돌파해내겠다는 강력한 소명을 가지고 대표에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호남 사람들과 능력 있는 호남의 지도자들이 지역 때문에 소외되거나 차별 받고, 공직 선출에 제한을 받거나 인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 분명히 반대하지만 단순히 비판만이 아닌,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 국민의당과의 연대, 경쟁을 통한 주도권 확보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박찬표 목포대 교수의 정치관계법 특강에 이어 표창원·박영선 의원이 각각 '행복과 정의, 그리고 정치', '호남민심 회복을 위한 당원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15일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투어 및 빛가람 전망대를 방문하고 해산했다.

## 정장선 총무본부장 전남 방문

### 도당 당직자들 노고 위로



정장선 당 총무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전남을 방문, 이낙연 전남 지사와 이개호 도당 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사무처 당직자 등과 만

찬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본부장은 이낙연 지사와 이개호 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들과 호남민심 회복 방안 등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 지난 4.13 총선에서의 사무처 당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원내대표 호남 특보(나주·화순)와 송대수(여수갑),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박규섭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도당 박규섭 사무처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에 박규섭(51.사진) 중앙당 조직국장이 6월 13일자로 취임했다.

박규섭 신임 사무처장은 충남 출신으로 중앙당 연수원 기획부장, 조직부장을 거쳐 기초국 부국장, 조직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 당의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 신임 처장은 "호남에서의 총선 패배를 딛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수권능력을 기르고 호남 민심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김성주 전 의원,

### 원내대표 호남특보 임명

신정훈·김성주 전 의원이 지난 6월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호남특보로 각각 임명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남 나주·화순의 신정훈 전 의원, 전북 전주 병(덕진구)의 김성주 전 의원을 호남특보로 지명해 더민주 원내와 호남의 직접 소통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광주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호남민심 회복을 위해 호남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 등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이개호 위원장, 세월호 특조위 릴레이 단식 나서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우리 당 세월호 TF 위원장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단식에 참여하기로 한 더민주 국회의원 중 4번째 주자로 나서 이날 하루 내내 농성현장을 지키며 단식했다.

이번 단식은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온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이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진, 우원식, 박광운, 손혜원, 표창원, 정춘숙, 김철민, 위성곤, 김현권, 신창현, 이재정, 박주민 의원 등 14명이 동참,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희망자가 없는 주말 단식을 자청한 그는 36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천막 농성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정부 여당에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과 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반드시 특조위 활동을 이어나가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 당보** 2016. 8. 10 (제15호)

발행인 | 이개호 편집인 | 홍지영  
편집위원 | 변중섭 · 김상인 · 김인아 · 송승환 · 장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 전남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잇따라

## 당 대표 후보들 '호남 당심잡기' 경쟁... 전당대회 분위기 고조

도당 대의원대회, 8월 16일 화순 하니움센터서 개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위원장 박병중 고흥군수)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4일 고흥군민회관에서 1천여명의 대의원과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전남도당 대의원대회(8.16) 및 전당대회(8.27) 대의원 선출 등을 위한 전남 각 지역위원회별 정기 대의원대회가 7월 27일 해남·완도·진도를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일제히 개최됐다.

각 지역 대의원대회에는 전당대회 당 대표와 부문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찾아와 호남 당심을 잡기 위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현)는 지난 3일 무안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8.27전당대회 전국대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김종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당 대표 후보자인 송영길 의원의 부

인 남영신씨와 형인 송하성 경기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에서 곳곳이 당을 지켜온 시의원 5명을 비롯한 지역 당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의 숙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종현 지역위원장은 “전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의 정치문화를 시민과 당원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정치문화로 바뀌어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나주·화순(위원장 신정훈), 광양·곡성·구례(위원장 김재무) △29일 여수·갑(위원장 송대수), 담양·함평·영광·장성(위원장 이개호) △30일 영암·무안

신안(위원장 서삼석)에서도 잇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4일에는 고흥·보성·장흥·강진(위원장 박병중 고흥군수), 순천(위원장 조충훈 순천시장), 여수(위원장 박병렬 전 도의회 의장)에서 대의원대회 개최를 모두 마무리했다.

8.27 전당대회에서 현장 투표권이 있는 전남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을 포함해 650여명이며, 권리당원은 7월 15일 기준 지난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2만5천여명으로 제한했다.

한편 오는 16일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열리는 도당 대의원대회는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및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겸해 열리게 된다.

##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재무 광양지역위원장 선임

도당 부위원장에 윤시석 도의원, 사회적경제위원장에 하석봉씨 임명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재무 광양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또 부위원장은 문행주·이민준·이혜자 도의원, 위원에는 심상례 광양시의원과 정옥남 도당 여성국장 등 9명이 선임됐다.

더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 달 15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5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도당 선관위 설치·구성의 건을 비롯, 도당 대의원대회 준비위 설치·구성, 정무직 당직자 임명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록 전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상무위에는 신정훈(나주·화순)·송대수(여수·갑) 지역위원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문행주 더민주 전남도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시

군의회 후보기 의장과 부의장 등 상무위원 65명이 참석했다.

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도당 대의원대회(8.16) 선관위 위원장에 김재무 지역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 도당 대의원대회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위원장에 박규섭 도당 사무처장, 위원은 김현복 장흥군병영회장·변중섭 부대변인 등 5명을 선출했다.

앞서 도당은 이날 오후 제14차 운영위원회 열고 도당 선관위 설치·구성과 정무직 당직자 추가임명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시석 도의원(장성)이 도당 부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에 하석봉씨가 새로 임명됐다.



김재무 선관위원장



윤시석 도당 부위원장



하석봉 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 도의회 더민주 도의원들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록

원내대표 문행주(화순), 대변인 우승희(영암) 선출



문행주 의원



우승희 의원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6월 29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 20명은 이날 의회사무처에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교섭단체 등록에는 더민주 소속 33명의 도의원 중 20명이 1차로 참여해 원내대표에 문행주(화순), 대변인에 우승희(영암)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서명을 받지 못했던 10명이 2차로 추가 등록을 해 더민주 원내 제1당의 위치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조례는 6명 이상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58명의 도의원 중 더민주는 33명, 국민의당 2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당은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의회 하반기 원구성 완료

부의장에 더민주 이장석, 상임위원장 운영 박철홍, 기획행정 서동욱, 경제관광 김연일, 안전건설소방 김기태, 농림해양수산 정연선



이장석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장석(영광) 전남도의회이 지난 6월 28일 제10대 하반기 도의회 부의장에 당선됐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 등을 선출했다. 의장 선거에선 더민주 이용재(광양) 의원이 임명규(보성·국민의당) 의원에게 아쉽게 패했으나 상임위원장에는 박철홍(담양)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는 등 더민주 소속 도의원 5명이 당선됐다.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서동욱(순천), 경제관광문화위원장 김연일(영암), 안전건설소방위원장 김기태(순천),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정연선(신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이장석 부의장은 “의원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2017 대선과 더민주, 그리고 호남

## 박영선 의원



“민주정권은 호남이 만들었다. 호남 없이는 민주정부의 탄생이 불가능했다. 호남인의 마음 속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염원이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 복원, 계파청산,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책과 후보가 필요하고, 사람과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획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두 번에 걸쳐 정권을 잡은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는 호남이 50년을 기다려서 만든 민주정권이다. 김대중 정부는 2기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지난 2002년 3월 16일 ‘광주의 선택’은 노무현 후보의 대선승리 드라마의 출발점이었다. 우리나라 민주정권은 결국 호남이 만들었다. 즉, 호남 없이는 민주정부의 탄생이 불가능했다.

노무현 후보의 호남에서의 압승은 57만 표라는 큰 표 차이로 당선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호남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광주 92%, 전남 86%, 전북 82%의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 탄생은 영남 민주세력과 호남이 합쳐서 이뤄낸 합작품이었다. 드라마의 주역이었던 호남인의 마음 속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염원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 호남은 더민주와 결별했다. 이유를 알아야 대책수립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과연 갈등이 시작됐는가. 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에서 호남민심 이반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민심이반은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결집했다.

이후 미완의 재벌개혁, 부산정권 발언 등으로 민주세력은 또 다시 분열됐다. 호남 홀대론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호남과의 갈등이 유발됐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께서는 크게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기득권과 계파, 당권싸움이 2007년 이후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2007년 대선에서 유일하게 호남에서 승리하고 타 지역에서는 전패했던 정동영 후보의 패배를 계기로 호남인들의 체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로 명맥을 유지했고, 올해 총선에서는 수도권 압승을 이뤘다. 결국 호남 없이는 야당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총선 후 저 혼자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살펴보았다. 상인들은 “선거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한거지?”라고 한결같이 반문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호남인들의 마음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인들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다. 즉,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둔 시대적 과제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소수 특권층의 갑질, 특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높다. 불평등,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고, 거기에 호남이 자리잡고 있다. 정의와 기회균등 같은 사회적 가치도 실현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시스템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내년 대선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얘기하는 후보가 이긴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샌더스는 원래 민주당이 아니었다. 25년간 무소속이었으나 민주당은 그에게 문호를 확장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힐러리의 인기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가 가진 가치도 정강정책으로 수용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진보정책을 수용하면서 사람과 가치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해 샌더스 열풍을 흡수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샌더스는 3회 연속 정권을 가져오는 사다리이자 기획상품 역할을 할 것이다.

정당에게 있어 확장성은 중요한 가치다. DJ는 오래전부터 확장성에 방점을 두고 결국 정권을 잡았다. 우리도 샌더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그런 전략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호남 포기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호남이 없이는 뭔가 모자라고 불안하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호남을 반드시 복원하고 △계파청산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책과 후보가 필요하고 △사람과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

## 행복, 정의, 그리고 정치

## 표창원 의원



전남은 더민주의 고향이자 성지이지만 웬지 낯선 느낌이 든다. 총선 패배의 아픔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련이 길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6개월 넘은 새내기 정치인이다. 오늘 특강은 제가 “정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한다.

영국 보수당 당수였던 윈스턴 처칠은 1953년 보수의 개념에 대해 “인간이 가진 깊고 복잡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욕과 수면욕, 생존본능,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소속감 등은 모두 인간이 가진 욕구들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정치는 어려운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영국 보수정치의 역사가 됐다.

더민주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하려 할까? 당신은 행복한가? 지금의 행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국민의 73%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2년 OECD 32개국 국민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경제수준 세계 11위인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었다.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 연속 어린이 행복지수도 꼴찌였다. 모든 경제난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경제난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녀를 낳지 않아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루트 비엔호벤은 30여년간 행복의 조건에 대해 연구했다. 3천 여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한 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복의 첫째 조건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드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핵과 미사일은 현존하는 위협이지만 안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 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해야 할 곳은 가장 안전한 교도소가 돼야 할 것이다.

둘째 조건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이다. 범죄자들에게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를 질문해보았다. 대부분 “죄송합니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행복했던 기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행복하지 않다. 정치가 이를 해결하고 메워져야 한다. 경제는 격차를 더욱 벌릴 뿐이다.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합리적 의심과 근거,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논의돼야 한다. 이것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대

“행복, 정의 이 모든 것이 정치의 사명이다. 더민주가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존립목표는 집권이다. 경제와 복지,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 이를 국민과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통령이 있으면 불행한 나라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의’이다. 자살한 연예인들 가운데 ‘스타’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생활고 문제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만족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치의 사명이다. 더민주가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업이 부를 독점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과실이 돌아가는 낙수효과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존립목표는 집권이다. 경제와 복지,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 이를 국민과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서 완승이 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패배 원인은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민주가 다른 당과 무엇이, 왜 다른 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당은 호남없이 승리할 수 없다.

다시 호남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자.





인류의 미래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조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내년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4일간 완도군 엑스포벨트에서 개최된다.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 후원, 전라남도과 완도군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해조류박람회는 바다신비관인 주제관을 비롯해  
 해조류 이해관, 건강인류관, 미래자원관, 지구환경관,  
 참여관 등 6개 전시관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산업형 비즈니스 박람회로 개최된다.



# 신비로운 바닷속 해조류의 모든 것

4월14일부터 5월7일까지 완도 EXPO벨트  
 국내 최초 해상 전시관·360도 워터스크린  
 3D영상 VR체험...특별하고 다양한 볼거리

이번 박람회는 해상에 바다신비관, 건강인류관, 미래 자원관을 조성하고 해조류부터 바다, 지구,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각 전시관마다 길러 콘텐츠를 구성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해조류를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건강인류관은 세계인과 함께 해운 해조류 역사를 되 돌아보며 헬스케어 기초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너비5m, 높이2m 규모의 입체적인 팝업북 형태로 만들었다.

미래자원관은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바이오연료, 화장품, 의약품들을 소개하면서 실제 완도 바다 속을 길이 12m, 폭 8m 규모의 전복수조안에 재현해 해조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박람회 주제관인 바다신비관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해상 360도 입체영상인 워터스크린으로 태초 지구 생명체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해조류 역사 등 해조류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2014년 박람회 주제관이었던 해조류 이해관은 '해조류의 시작, 완도에서 꽃피는 해조류산업'이라는 부제로 해조류생산의 최적지인 완도지형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관람객의 움직임에 맞춰 바닥의 영상이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관람객을 유혹한다.

지구환경관은 바다 속 영상을 360도로 촬영한 VR(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 3D영상으로 실제 바다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조 숲을 생생하게 표현해 냈다.



참여관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들이 해조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B2B·B2C 영업을 할 수 있는 비즈플라자를 운영하며, 해조류 생산설비를 갖춰 그 생산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보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람객이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청소년 교육 체험장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신우철 조직위원장(완도군수)은 "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미래 해양헬스케어로서 해조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해조류가 정말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해조류 세계시장 주도권 선점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초감도

## '국제행사' 정부 승인... 국비지원 '탄력'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정부로부터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조류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제행사 승인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10억원 이상의 국고자원을 요청한 국제

행사에 한해 경제적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해 국가행사로써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행사 주관 기관 축소, 국제행사 졸업제도 도입, 외국인 유치 비율 설정, 유치 승인 후 재정관리 강화 등 국제행사 승인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완도군에서는 그동안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해조류박람회 개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설득한 결과 이번 승인을 이끌어 냈다.

# 흑산도 역사문화자산 활용 다양한 축제 성공개최 낙후와 소외 딛고 '가고싶은 여행지' 대변신 꿈꿔



김형주 전 흑산면장

“

흑산도는 과거 연평도 등과 함께 서해안 3대 파시를 형성했지만 현재는 연안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어 관광분야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근성 때문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어 아름다운 자연을 토대로 흑산도만의 역사적 자산과 인물, 먹거리 등에 대한 스토리를 엮어 관광산업에 접목해야 합니다

”



흑산도 상라봉에서 바라본 일주도로와 흑산도가끼리 노래비, 예리항 해안가의 절경/사진=신안군청 제공

흑산 홍어의 본고장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신안 흑산도.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흑산도는 낙후와 소외의 이미지가 늘 따라붙는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흑산도는 가장 가까운 육지인 목포에서 107.3km 떨어져 있다. 쾌속선으로 두 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거리다. 섬을 방문하더라도 도로와 항만, 관광편의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낙후되고 소외된 흑산도의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

최근 흑산도는 오랜 낙후와 어둠의 터널을 뚫고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여행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천혜의 풍광에 더해 역사적 자산과 인물, 먹거리 문화 등을 새롭게 발굴·조명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김형주 전 흑산면장(64)은 흑산도의 역사적, 인문학적 자산들을 관광자원화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온 주인공이다.

지난 2011년 흑산면장을 끝으로 공무원 정년퇴직 후 더민주에 입당한 그는 지금도 고향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 하지 않고 뛰고 있다.

현재 어촌어항협회 목포지회 천일염 이력제 관리소장으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한 그는 면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7년 흑산홍어축제를 기획해 성공시켰다. 또 홍어축제와 함께 상라산 등반대회, 갯바위 낚시대회 등을 잇따라 선보여 대회 참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상라산에는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뒤 서해에 출몰하는 왜구들을 막기 위해 축조한 상라산성을 비롯한 무심사지 석탑 등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있다. 산성에서는 봉수대와 군사들의 주거지 등 소중한 역사유적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서해안 3대 파시(波市)로 이름을 날리며 어업전진기지로만 이름을 알리던 흑산도의 유서깊은 역사를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게 됐다.

김 전 면장은 “흑산도는 과거 연평도 등과 함께 서해안 3대 파시를 형성했지만 현재는 연안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어 관광분야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접근성 때문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어 아



김형주 전 면장으로 부터 명예 면민증을 수여받는 정장선 전 의원



명예면민증 수여식 후 김 전 면장을 비롯한 흑산면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한 정장선 전 의원

## '명예면민' 정장선 총무본부장-흑산도 인연 '화제' 정 본부장 관광인프라 확충 위해 물심양면 지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홍도명예면민'으로 위촉

름다운 자연을 토대로 흑산도만의 역사적 자산과 인물, 먹거리 등에 대한 스토리를 엮어 관광산업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전 면장의 소개로 섬의 매력에 빠져 흑산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다. 그와 의 인연으로 흑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홍보대사 역할은 물론 예산지원 등에 앞장서온 정계 인사들도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3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무본부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 2008년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흑산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공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명예 면민증을 수여받았다. 지역발전에 헌정한 공로로 명예시민이

나 군민으로 위촉된 경우는 있었으나 명예면민 위촉은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흑산면 관할인 가거도에 휴가차 왔다 갑작스런 비바람으로 배편이 묶이면서 김 전 면장과 돈독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다. 정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소속 홍재형 전 국회 부의장, 우윤근·양형일 전 의원 등과 함께 가거도를 방문했다가 김 전 면장의 도움을 받아 행정선으로 흑산항에 피항한 적이 있다. 김 전 면장은 이 때 만난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흑산면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특히 당시 낙후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발의한 바 있었던 정 전 의원은 소박하고 때 묻지 않은 흑산 주민들의 생활상을 접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와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정 본부장은 △흑산도 일주도로 건립 △장도, 만재도 내연발전소 증설(국비 30억원) △상라봉 전망대 화장실 건립(교부세 3억원) △흑산홍어특화사업 추진 사업 등을 특별지원했다.

이어 흑산종합운동장 건립 예산(30억원)을 확보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가거도 끝섬 관광개발사업(200억)도 중앙정부에 타당성을 적극 역설하고 있다.

또 25년이 지나 노후된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을 위해 전남도에 건의해 관련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평택 호남항 우회와 가거도 주민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특산물 직판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섰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말 총선 불출마 선언 당시 흑산도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자 목포에 내려와 1박을 하며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 외에도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홍도 명예주민 1호로 위촉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홍도에 은행 현금인출기가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체국 현금지급기 설치예산 지원에 앞장섰다. 이런 인연으로 홍도주민들은 올해 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홍도에 원내대표 당선 축하 현수막을 게첨하기도 했다.

한편 흑산면은 본섬인 흑산도 외에 홍도와 가거도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의 1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다. 인구는 4,700여명. 이 가운데 흑산도에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거주한다.



# “당에 정보가 없다 나에게 정보가 오지 않는다”

## 동교동계 신파 한화갑, 당내 비주류로 전략 자인

한화갑 전 최고위원의 신파 세력은 한광옥 세력의 구파 가세로 점차 여권 내 비주류로 전략해가는 느낌이 있었다. 한 전 의원은 실제 완전히 비주류를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전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적이 많았다.

한 전 의원은 2001년 5월 정풍운동 당시 “청와대 비서진이 잘못하고 있다”면서 소장파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 전 의원은 “당에 너무 정보가 없다”고 한탄했으며 “나에게도 정보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근태, 동교동계 해체 요구

신·구파의 분리와 관련, 당시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은 신파든 구파든 필요에 따라 사람을 중용한다”면서 “동교동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쓰임새가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신파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다. 한화갑 전 위원이 독하게 마음먹고 이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선 김 전 대통령이 아예 신파를 배제하고 구파 중심의 정면돌파전략을 세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광옥 전 대표가 당직개편과정에 한화갑 전 최고위원의 신파를 중용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당내 각 세력에 골고루 힘을 분산시키기보다 하나의 세력에게 힘을 집중시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의중과 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 전 위원이 김근태 전 최고위원의 동교동계 해체 요구에 대해 “동교동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태연히 받아친 것도 정면돌파 의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권 전 위원은 “김 전 위원이야말로 그 기반 위에 수혈된 것”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했다.

이와 관련, 당시 동교동 핵심세력들의 편협한 ‘주인 의식’이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김근태 전 위원은 “동교동이 과거 고생을 많이 했고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민주당을 동교동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파, 독자행보로 ‘홀로서기’

권 전 위원은 “2002년 대선 경선에서 지지후보를 밝히겠다”고 천명해 놓은 상태였지만 구파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인제 전 위원 지지의사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면 민주당의 내분은 견잡을 수 없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은 레임덕을 우려, 구파와 한광옥 전 대표 체제를 신임했지만 거꾸로 당내 분란을 자극해 레임덕을 부추기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다. 당권파들에겐 2001년 10·25재선거가 중요한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는 당정개편을 해놓고 재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느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위기가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예기였다. 동교동 구파가 몰락하더라도 신파에게 곧바로 기회가 올지는 불투명했다.

구파가 몰락하면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빨빨이 줄서



문희상 의원 : 신·구파의 분리와 관련, 당시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은 신파든 구파든 필요에 따라 사람을 중용한다. 동교동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쓰임새가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전 최고위원 : 김근태 전 최고위원은 “동교동이 과거 고생을 많이 했고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민주당을 동교동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옥 전 대표 : 한광옥 전 대표는 당직 개편 과정에서 한화갑 전 최고위원의 신파를 중용하지 않았다.



김옥두 전 의원 : 김옥두 전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보가 없다”며 동교동계의 실체를 부인했다.

<사진=고려대 현대정치연구소 제공>

김 전 대통령은 레임덕을 우려, 구파와 한광옥 전 대표 체제를 신임했지만 거꾸로 당내 분란을 자극해 레임덕을 부추기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다 당권파들에겐 2001년 10·25재선거가 중요한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게 돼 민주당의 분열과 레임덕을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었다. 어쨌든 여권은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선후보를 뽑는 2002년 당내경선 때까지 동교동 구파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됐다.

신파는 이제 전통적 동교동에서 떨어져 나와 험난한 세상에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이 신·구파의 재결속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신·구파의 독자행보를 계속 용인할 것인지는 2001년 연말쯤 결판날 것으로 보였다.

권 전 위원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삶이 아름답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동교동계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동교동 캠프는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김대중 전 총재를 모시고 동교동락하는 동안 생겨난 끈끈한 인간적 신뢰가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지만 동교동 캠프에 이만큼 어울리는 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동교동 동지들은 말 그대로 눈물로 맺어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세간에서 이를 맹목적인 충성이라고 비판하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갑 동지는 이 같은 충성을 ‘옳은 것에 대한 복종’이며 ‘실증적 진실에 대한 복종’이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우리도 현대적인 고등교육을 받았고 누구 못지않게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우리의 충성심은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40여 년씩 동교동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입니다.”

### 권노갑, ‘동교동=민주당’ 등식 역설

김옥두 전 의원이 “우리 당에는 계보가 없다”고 동교동계의 실체를 부인했지만 권 전 위원의 생각은 달랐다. 권 전 위원은 실체를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동교동=민주당’이라는 등식을 세우며 정통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2001년 당시까지도 매월 한 번씩 정기회합을 가지며 단결을 도모하고 있었다.

동교동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좌장은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다. 그의 위치는 사실상 DJ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상이 표면적으로 가시화한 때는 1992년 대선 패배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국 유학을 떠난 다음으로 볼 수 있다. 물론 1984년 5월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결성 때도 권 전 위원은 DJ를 대신해 동교동을 이끌고 나갔지만 1992년 대선 패배 뒤에는 DJ의 재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깃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기택 전 대표가 주도했던 민주당에서 권 전 위원은 ‘내외문제연구소(이하 ‘내외연’)’를 설립, 동교동계 의원들을 추스르면서 본격적으로 DJ대리인이란 호칭을 얻었다.

이는 사분오열 위기에 처한 동교동계 의원들에게 DJ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고, 내외연은 DJ철학의 계승발전을 모토로 권 전 위원에 의해 잘 유지됐다. 동교동은 DJ에 의해 생겨났지만 유지·발전의 공로는 권 전 위원에게 있는 셈이었다.

송승환 편집위원

논평 1

### 호남 철도망 개선 외면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난 19일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답습해온 말 뿐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완결판이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 대한민국 철도망 계획이 영남과 수도권 중심의 SOC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은 호남의 열악한 철도망 개선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하고도 국가 철도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행복 시대'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향후 10년 간의 정부 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배제된 광주·전남

주요 철도 현안 사업들은 △호남선 KTX 2단계 구간 무안공항 경유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건설 등이다. 그 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했던 사업들이다.

정부는 경전선의 전철화 사업 일부만 신규 사업에 포함하고 광주·전남에서 요구한 대부분 철도 사업들은 배제했다. 그나마 책정된 남해안 철도 보성~목포간 건설사업도 실제로는 2차계획(2011~2020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준공시기만 늦췄다.

3차 철도망 구축예산 총 44조6314억원 중 광주·전남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조353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3%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철도망 구축 사업비 10조

4천억원 중 광주·전남에 배정된 금액도 4200억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군산~목포간 서해안 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의 추가 사업 지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과 함께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영광 힐링 컨벤션리조트**  
Healing Convention Resort  
양국진스피치 연수원

- 전남 영광군 불갑면 소재(불갑사)
- 28객실(최대수용 250명)/공무원, 기업체 연수/펜션숙박 (부설시설:식당, 커피숍, 세미나실)
  - 숙박(가족, 커플 등)
  - 축제(상사화, 노을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
  - 등산로, 산책로 공원조성
  - 운동시설 완비(족구장, 축구장)
  - 계곡(물놀이 가능)
  - 산림박물관(견학가능)
  - 백수 해안도로 근접





문의 전화 061) 353-4476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359번지

논평 2

###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이런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총 4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을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비하하고, 계엄군에 희생된 사망자와 가족들을 조롱·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정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5·18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그러나 36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어 80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군사독재에 대한 시민항쟁을 북한과 연계시켜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극우인사들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6. 7. 2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전남도당 7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도이월금보조금 외 지원금 등 6억356만4,710원

지출, 기본경비·정치활동비 등 6천521만9,068원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의 7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3천993만8,690원과 당비 4천329만7,600원,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 등 6억356만4,71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항목으로 5천312만7,828원, 조직활동비 615만5,000원, 정책개발비 312만원 등 6천521만9,06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5억3천834만5,642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김현진 차장 ☎061-287-1219

##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6.07.01 ~ 07.30)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년도이월	539,938,690	512,597,129	27,321,561	
	당비	43,297,600	43,297,600	0	
	기탁금(중앙당제한함)	0	0	0	
	후원회기부금	0	0	0	
	보조금(중앙당제한함)	0	0	0	
	차입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10,000,000	10,000,000
	하급당부		0	0	0
	계	10,000,000	10,000,000	0	
소계	10,000,000	10,000,000	0		
그밖의수입	10,328,420	10,328,420	0		
합계	603,564,710	576,223,149	7,166,226		
지출	선거비용	0	0	0	
	기본경비	인건비	인건비	45,947,533	45,947,533
			사무소설치운영비	7,180,295	7,180,295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	3,420,000	3,420,000
			조직활동비	6,155,000	6,155,000
			여성정치발전비	0	0
	그밖의경비	2,516,240	2,516,240		
	정치자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소계	0	0			
합계	65,219,068	65,219,068	0		
잔액	538,345,642	511,004,081	27,321,561		

##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합동워크숍 가져

6월 16일, 경기도 라비도리조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6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라비도리조트에서 중앙당 및 전남도당을 비롯한 전국 시·도당 당직자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정장선 총무본부장, 이언주 조직본부장, 이철희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과 채인석 화성시장이 행사장을 방문, 당직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 행사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손학규 상임고문 참석

6일 목포 김대중기념관, 7일 하의도 생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난 6일 저녁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유지 계승을 다짐했다.



이날 개최된 '2016 김대중 평화캠프'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남지사, 더민주 김종현 목포지역위원장 등 야권 정치인 20여명이 참석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저녁 6시40분쯤 행사장에 도착해 박지원 위원장 등과 악수를 한 뒤 기념관 추모 시화전 개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공연장 맨 앞줄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40여분 뒤 도착한 손 전 상임고문은 관람석 중앙에 자리를 잡고 공연 등을 관람했다.

문 전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노 전대통령 서거 당시 피를 토하는 슬픔을 토로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남북관계가 모두 위기라며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셨다"며 "그 유지를 받들어 야권이 힘을 합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주최 측의 기념사 요청을 사양했으나 행사 뒤 찾아온 문 전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잠시 인사를 나눴다.

손 전 고문을 비롯한 평화캠프 참가자들은 7일 신안군 하의도 고 김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다.

###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 행동하는 양심으로 정권교체 앞장 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전라남도당 대의원대회

·일시: 2016. 8. 16(화) 오후 2시  
·장소: 화순 하니움센터



**평화콘서트에서 손 잡은 야권 정치인들**

대표 후보,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연단 위에 도열해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김대중 평화 콘서트'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 이종걸 당



지난 2일 더민주-전남도 예산정책협의를 마친 뒤 우상호 원내대표,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이낙연 지사, 이개호 도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무안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활주로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합동 워크숍에서 전남도당과 광주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당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 M스테인호텔에서 지난달 14일 열린 핵심당원 워크숍에서 강사로.....



이개호 도당위원장이 지난 6월 2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20대 총선 공로당원 당 대표 표창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 M스테인호텔에서 지난달 14일 열린 핵심당원 워크숍에서 당 대표 후보인 추미애·송영길 의원, 안민석 당 교육연수원장, 이개호 도당 위원장, 송대수 여수갑 지역위원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도당 운영위원회(의장 임흥빈 도의원·신안) 회의 모습



지난달 27일 열린 도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규섭) 1차회의 모습



## 명성PVC자재백화점

상하수도 부속일체

토목자재 (이중벽관 그레이팅 주철맨홀)

영양제,비료,고추지주대(액비기계)

농자재,관수자재 및 시설  
(여과기 물탱크 부직포 차광망)

스프링쿨러 견적해드립니다

TEL : (061) **453-4885-6**  
 FAX : (061) **453-5405**  
 H·P : **011-641-5405**  
 무안군 무안읍 봉탄로 10(무안병원 입구)






